

제 178 호

2024 년 4 월 11 일

- 1. 해양이슈와 정책(1)
- 2. 해양이슈와 정책(2)
- 3. 해양이슈와 정책(3)
- 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1. 동남아의 인도-태평양 래티스 워크를 완성할 미-일-필리핀 정상회담

- ▶ 발행기관: Wilson Center
- ▶ 저 자: Lucas Myers
- ▶ 일 자: 2024년 4월 4일
- ▶ 개 요

2024년 4월 11일,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워싱턴 DC에 초청하여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. 이번 회담을 통해 미-일, 그리고 미-필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, 나아가 오커스(AUKUS), 미-일간 군사협력, 3자간 상호 정보 처리 운용,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연합 순찰 등 실질적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 하지만 이번 3자 회담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선언 때문이 아니라, 두 동맹이 인도-태평양에서의 더 높은 차원의 "래티스 워크(격자세공)" 안보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임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2. 잠수함 노동력 위기: 현실 직시와 장기적 전략의 재수립

- ▶ 발행기관: War on the Rocks
- ▶ 저 자: Alexander Grey
- ▶ 일 자: 2024년 4월 4일
- ▶ 개 요

2022년 9월 기준으로 잠수함 산업단지 노동력은 일정에 맞추어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을 조달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의 75% 수준으로, 미 해군에게 제때 잠수함을 조달하여 일정 수준의 수중 함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.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투력 투자 정책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는데, 이는 잠수함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 인도-태평양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함. 또한 잠수함 산업단지는 구인 전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STEM(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) 분야에서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함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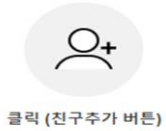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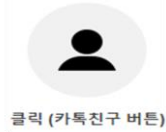
KIMS Newsletter

제 178 호

2024 년 4 월 11 일

- 1. 해양이슈와 정책(1)
- 2. 해양이슈와 정책(2)
- 3. 해양이슈와 정책(3)
- 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<KIMS 카톡 채널>



3. 중국 해군이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함 활용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

- ▶ 발행기관: The Diplomat
- ▶ 저 자: Lyle Goldstein, Nathan Waechter
- ▶ 일 자: 2024년 4월 4일
- ▶ 개 요

미래 전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은 탱크의 활용부터 대함순항미사일 및 드론의 전략적 사용 등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.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최근 주요한 교전 경험이 없는 만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게 더 큰 교훈을 주고 있음.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무인 수상함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. 중국 해군은 무인 수상함의 공격 및 방어 능력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,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대만과의 물리적 충돌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4. 중국은 2007년에 이미 미 항공모함 침몰 능력을 입증했다.

- ▶ 발행기관: The National Interest
- ▶ 저 자: Brandon J. Weichert
- ▶ 일 자: 2024년 4월 7일
- ▶ 개 요

2007년, 중국의 송(宋)급 디젤 잠수함이 미 해군 훈련 당시 USS 키티 호크호(USS Kitty Hawk)의 어뢰 반경 안을 스텔스 모드로 지나가면서 미 해군력의 취약함을 드러냄. 이 사건은 중국의 커지는 군사력, 특히 반-접근/접근 거부(A2/AD) 전략과 발전된 어뢰 기술을 보여줌. 핵잠수함과 비핵잠수함 모두 미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전략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음에도,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없이 항공모함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. 중국의 어뢰 및 무인 잠수함의 발전은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을 간과한 채 구식의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